

1.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2. **설명절**: 오늘은 설명절입니다. 고향 부모형제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불신형제를 전도하는 전도의 날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예배모범 참고).
3. **홍해작전 40일 특별새벽기도회**: 2010년 홍해작전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4.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 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5.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손종기 목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 다음주는 오광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6. **각반 성경공부**: 오늘 성경공부는 명절로 쉬게 됩니다.
7. **금요기도회**: 2월19일 금요기도회는 제5남전도회 주관으로 모입니다(저녁8시).  
➢ 특별 신유집회로 모일예정오니 영육의 회복을 갈망하시고 참석바랍니다.
8.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일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집전실, 카타쿰기도굴, 남여중보기도실에 온열난방 설치).  
➢ 권사님들은 2명씩 숙직조를 편성하셨습니다(주보6쪽 참고).  
➢ **금주담당자**: 주(황생자, 권화숙) 월(김순심, 유암덕) 화(김정숙, 이귀남) 수(손종기목사) 목(최지혁부목사) 금(문종승강도사) 토(김성훈전도사)
9. **보리떡운동**: 성도님들이 작성한 헌금을 보리떡 운동이라 했습니다.  
➢ 전성도님들은 보리떡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066-107-313157(광주은행)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10. **주차안내**: 교회 중직자들의 차량은 노인복지관주차장, 영천초등학교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구암송대회**: 1월성구 암송대회를 21일(주) 오후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주보5쪽)
12. **당회장동정: 세계포도원교회 부흥집회**- 2월17일(수)-19일(금)까지  
**영남노회 제직수련회**- 2월22일(월)-24일(수)까지  
➢ 인도할 계획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교사세미나**: 제1회 주교연합회 신년교사세미나가 2월27일(토) 13시-18시까지 광주은광교회당에서 김연규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실시됩니다.  
➢ 교사들은 참여하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좋은 배움의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 **다음주**: 선교헌신예배, 성구암송대회, 정기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15. **주일전도**: 2남, 3남, 6여, 7여전도회 전도주일(주변 아파트단지).  
➢ 남전도회-최지혁부목사, 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인도로 실시바랍니다.
16. **주일심방**: 객세중 진영만장로, 모순자 방정원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17. **입원성도**: 조복임집사(동아병원) 최봉주집사(성심병원) 박일순집사(성심병원) 정하섭장로-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 한예수교 하남은광교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26:46)

## 설 명절 주일을 전도하는 날로...

담임 교역자  
손종기 목사  
(010-7283-8291)

2월은 기도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중 송희중 옥 룡  
김중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옥 룡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객세중,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이은혜·김예슬  
【마리아성가대】  
◆대장:김문옥, 지휘:김유영(객지혜)  
◆반주:김수경·계경숙

1/1-2/9 홍해작전 40일 특별새벽기도회(9일)  
2/1 교역자산상기도회(교역자, 복지팀)  
2/7 복지위원회 헌신예배(가과,홈스쿨,경로대학)  
정기제직회(오후예배 후 본당)  
여호수아,1남,4여,5여전도주일  
2/14 2남, 3남, 6여, 7여전도회 전도주일  
2/21 선교헌신예배(주일오후예배)  
정기교육위원회(오후예배후 새신자실)  
4남,5남,8여,9여전도회 전도주일  
2/28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월례회(낮예배후 각 기관 별)  
당회(오후예배후 당회원 실)  
청년부, 대학부, 10여,사라여전도회 전도주일

###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섬김이	인도자
10-12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전도사: 김성훈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하남은광홈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506-0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9-14

##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 준비 ..... 다같이 (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 회 자  
\*개회송영 ..... 성 가 대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28 (통28) .. 다같이  
\*성서교육 .. 제 7 문 .. 다 같이  
\*사죄확신 .....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214 (통349) .. 다같이  
기 도 ..... 1부 김영관 장로

성경봉독 ..... 마7:7-11(신10)  
찬 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 도 ..... 다 같이  
찬 송 .. 441 (통498) .. 다같이  
봉 헌 ..... 다 같이  
감사기도 ..... 설 교 자  
\*주기도송 ..... 다 같이  
\*축 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찬송 .. 405 (통45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30분 사회: 최지혁 부목사  
설교: 최지혁 부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김태석 장로  
찬 송 / 365 (통484) / 다같이  
성경봉독 / 삼상 1:1-20(구407)  
말씀선포 / 최지혁 부목사  
“한나의 기도”

찬 송 / 369(통487) / 다같이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주일밤 성경통독-  
다음 주에 만나요(창세기)

##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강성명 집사  
설교: 문종승 강도사

찬 송 / 361(통480) / 다같이  
대표기도 / 진윤희 권사  
성경봉독 / 왕하 19:14-19(구596)  
특 송 / 제18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문종승 강도사  
“오직 기도”

헌금기도 / 365(통484) / 유금례 권사  
광고축도 / 최지혁 부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문채숙	6	9000		김부현	김요상	954-3319	검면중앙교회/5만
	2	양혜숙	2	4000	101	박영심	양혜숙	951-2437	서부은광교회/15만
	3	임태혜	5	7000		김영숙	송희중	953-7579	장산중앙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교 회	2	5000		송미경	김태석	434-2827	연동은광교회/5만
	5	김정순	6	13000	163	김희석	이현일	952-5880	경동교회/5만
	6	박복임	6	8000	70	김영혜	이동만	953-0774	금호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교 회	2	4000		송숙란	조선경	952-1672	영광교회/5만
	8	박의하	6	12000	298	유길남	박의하	954-4684	용산중앙교회/5만
	9	이영희	4	7000	50	김득자	진영만	956-2902	노력도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정영순B	7	7000		임명자	김경애	945-2713	남도시민교회/5만
	11	박점순	5	8000	38	전윤선	최상윤	384-8475	서림교회/5만
	12	손문옥	4	10000	135	신진성	김명관	961-9632	삼기중앙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한정자	6	7000	170	김숙경	김숙경	956-5064	세계포도원교회/5만
	14	남 미	5	5000	27	김양선	서향임	951-2785	광주반석교회/5만
	15	김영월	4	8000	132	박영애	최옥기	952-7101	오치은광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서정옥	5	11000		전순이	전순이	671-1109	오치은광교회/5만
	17	강미순	5	8000		교 회	조윤기	954-3784	사랑의교회/5만
	18	교 회	7	15000	173	옥 통	강성명	942-3919	심미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2	2000		김기태	김기태	952-8667	광덕교회/5만
	20	김홍순	5	9000		이동만	이준호	952-8590	연화교회/5만
	21	정종균	5	9000		한만희	한만희	956-0484	운암평화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종장로	22	장현자	4	5000	64	김문옥	김문옥	954-2660	구름다리교회/5만
	23	김유영	14	8000		이현복	김태호	01039778667	구름다리교회/5만
	24	우숙희	5	8000	98	김선자	김종철	953-9917	대전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장로	25	이종순	6	8000		김현경	서점순	961-8640	대전교회/5만
	26	김계행	12	9000	55	김현열	안영철	01050437055	송정은평교회/5만
	27	교 회	4	22000	230	김숙자	손종기	962-3301	나주신광교회/5만
제10지구장 옥 통장로	28	교 회	5	5000		교 회	서진옥	413-5357	아가페교회/5만
	29	김막녀	5	11000		김경식	김성훈	952-3304	미션21/5만원
	30	교 회	6	12000	12	임춘진	임춘진	962-8516	남악신광교회/10만
제11지구장 김종철장로	31	백희숙	9	12000	85	윤미숙	유영만	961-3477	남악신광교회/10만
	32	이상희	9	40000	34	이병옥	김용덕	01026362114	군산교연합회/5만
	33	안수집사회					김영근	956-1538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제12지구장 최지혁부목사	34	권사회					임춘진	962-8516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35	중등부	5				손성은	962-6487	오일환선교사/5만
	36	고등부	7				유화평	961-3477	오일환선교사/5만
제13지구장 최상윤장로	37	은광어린이	17	5000			임현옥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8	아남예술	8	5000			옥송주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9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CBS기독교방송/10만
제14지구장 손종기목사	40	대학부	8				김진선	953-3909	열방네트웍/5만
	41	청년부					김건승	961-9632	열방네트웍/5만
	42	교 회	6	10000	200	교 회	최지혁	385-1320	보내는 선교사

## 2 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곽세종	다음주일 낮기도: ◆1부 김병엽 장로 ◆2부 이동만 장로 다음주일 오후기도: 손문옥 집사 다음삼일사회특송: 김기태 장로(19구역) 다음삼일기도: 장미옥, 헌금: 이봉순 권사 금주 2/20(토)청소: 3남전도, 8여전도회 이번주(14)식사당번: 교역자복지팀 구역 다음주(21)식사당번: 5, 7, 8 구역
	2부	김기태 김종철 유영만	
안내	이동만 서진옥 박동숙 박종관 이건국 고용주 이봉순 조선경 김숙자 권화숙 김순심 강춘자 정영옥 정순영 신은숙 송숙란 양선숙 우숙희 전윤선 양재숙 황애자 임순분 김경애 조정화 박경희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열왕기하 20:1-11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364장) / 죄짐 맡은 우리 구주(369장)



구약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 술 취했다는 오해를 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기도를 드리는 솔로몬 등 구약은 시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왕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죽음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상황이 어렵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도 쉬는 죄'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화를 입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매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왕하19:4,16).

**1. 히스기야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왕하20:3).**

인간의 삶은 정말 묘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곤 합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의 공격으로 힘든 순간을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 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며 큰소리치던 산헤립이 신하의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에 히스기야는 다시 전혀 다른 종류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극복하기 힘든 질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병든 히스기야를 찾아와 싸늘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 하라. 국고 살지 못하리라." 낫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던 히스기야는 달리 드릴 기도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왕하20:5).**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흔들리던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으려하는데 질병이 닥치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렐29:11).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가 성읍 중앙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삼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생명을 15년간이나 더 연장 받았고 앗수르는 더 이상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3.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왕하20:11).**

아무리 기도하는 히스기야, 개혁적이고 선한 일을 행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예사롭지 않은 질병이 그렇게 쉽게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금방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 믿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기를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만큼 위기를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요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자고 합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십도 나아가게 하든지 뒤로 물러가게 하든지 방법을 택해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워 보이는 쪽을 택합니다. 물러가게 해달라는 요구에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마7:7-1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조건 모든 것을 제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사실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 1)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마7:7).
- 2)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마21:22).
- 3) 낙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눅18:1).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들은 기구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사들이 모두 다 현재 시간의 명령사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다 그 행동의 계속성을 표시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 걸고 기도 합니다.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빌4:6-7),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약1:5-7) 다 니엘처럼 생명을 걸고-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단6:10).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엡6:18), 두 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18:19).

**2. 어김없이 응답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 1)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주십니다.
- 2)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게 해주십니다.
- 3)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열어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주님의 신실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작흥시키고 격려시키는 것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 악한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 했습니다.**

- 1)악한자라도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주지 않습니다.
- 2)악한자라도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생선대신 뱀을 주지 않습니다.
- 3)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너희도 자식의 청구를 들어주거든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말할 것이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49:15;시27:10).

맺는 말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 해주십니다(눅11:13).

- 1)좋은 것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 2)좋은 것은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 3)좋은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 아닌 다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 1. 유래

설이 언제부터 우리의 명절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중국의 역사서 『수서(隋書)』와 『구당서(舊唐書)』에는 신라인들이 원일의 아침에 서로 하례하며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이날 일월신(日月神)을 배례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설 명절이 역법체계에 따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전부터 설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가령 3세기에 나온 중국의 사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의 제천의례에 대한 기록에서 설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은정월(殷正月), 5월과 10월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 등과 같은 표현은 당시 역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은정월은 은나라의 역법을 지칭하는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음력 설달을 말한다. 이는 복잡한 역법상의 기준 차이일 뿐, 연조라는 관념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역법을 통해 각 달을 가능했으며 한 해의 시작으로 세수(歲首)인 설이 존재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설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기록은 7세기에 나온 중국의 역사서에 나타난다. 『수서』와 『구당서』의 신라 관련 기록에는 왕권 국가로서의 설날의 면모가 잘 나타난다. 즉 “매년 정월원일에 서로 경하하며, 왕이 연회를 베풀고 여러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 이날 일월신을 배례한다.”는 기록은 국가 형태의 설날 관습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 2. 설의 어원

“‘낫설, 시작하는, 삼가는 날’이란 뜻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다.

1)우선, 설날을 ‘낫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낫 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2)다음으로 설날은 ‘선날’ 즉 개시(開始)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 화되어 설날로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3)마지막으로 설날을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썰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慎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일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다. 설날은 원일(元日)·원단(元旦)·정조(正朝)·세수(歲首), 세초(歲初)·세시(歲時)·연두(年頭)·연시(年始) 등의 한자어로도 불린다.

4)설날을 한때는 구정(舊正)이라고 불렀다.

구정이란? 양력설을 신정(新正)이라 부르는 것에 대비되어 생긴 설날의 이칭(異稱)이다.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설이 아닌 오래된 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시간관념 아래, 새해는 음력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음력에 기반 한 전통적 시간체계는 1896년을 기하여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따르게 되었다. 양력설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에 의해서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시간 체계에 맞는 양력설을 새롭고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으로 부르고, 피식민지인인 한국인들이 쇠는 음력설은 오래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정으로 불렀다. 일제가 전통 설을 지칭한 구정이라는 명칭은 일제의 양력설 정책을 답습한 해방 후 한국 정부에 의해서도 사용되었고, 그 사용이 장려되기도 했다. 음력설은 해방된 뒤에도 공무원이나 일부 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해를 맞고 차례를 모시는 날이었음에도 정부는 1985년에서야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음력설을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989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음력설을 설날로 개정하고 전후 하루씩을 포함하여 총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전통 설은 구정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고 구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서 발췌)

이천 심년 이월 십사일(설날)  
담임목사 손 중기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감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손	문	옥
특	송	.....	제 5 남전도회	일동
설	교	.....	최 지 혁	부 목 사
개 인 기 도	.....	다	같	이

합심기도제목			
교 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도 전도	●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10년에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게 하소서		
	● 2010년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는 교회되게 하소서		
개척	●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	김태호 집사	
직분	●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교육 기관	● 복지관건립과 복지사역을 위해 지혜, 인재, 물질 허락 하소서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국가 선교	●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성도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 병원임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 ● 십 일 조

교역자 : 전순이  
 장로 : 김종철  
 안수집사 : 조윤기 손문옥  
 권사 : 서금자 김복희 김막녀 김숙경 전향님 이정자 문채숙 서금자  
 집사 : 김덕수 기연님 김판심 계경숙 윤경순 김상호 김선애 이병욱 허성복 이현복  
 오영자 성진아 이은숙 김성수 양선숙 박명진 김순자 계경숙 김유리 황애자  
 유수중 전경순 손상원  
 ♥♥♥♥ : 최중현 신철균 조성준 김 범 남혜민 무명3

##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종기 전순이  
 장로 : 옥 룡  
 안수집사 : 최재현  
 권사 : 김순심 박경남 김숙자 장미옥  
 집사 : 한정자 기연님 손상원 정도경 강춘자 민찬임 박경희 김지현 손우정 김상규  
 오금례 박종삼 김변순 우숙희 기길남 전경순 윤미숙 옥승주 한정자 박종관  
 정영순 김숙희  
 ♥♥♥♥ : 이영선 신철균 최현무 이영희 윤정옥 이영선 이영현 이성노 김 범 조병규  
 오은아 조리라 정해정 정순비 노병호 무명10

## ● 선교헌금

교역자 : 최지혁  
 장로 : 김문옥  
 안수집사 :  
 권사 : 문채숙 김복희 김홍순  
 집사 : 박복임 조정화 강성명 오영자 김상규 이은숙  
 ♥♥♥♥ : 사라여전도회 최중현 문귀만

## ● 복지헌금 · 보리떡

서향임 서진옥 이현순 이길례 김복희 김순심 박영심 헌신예배 무명2  
 김복희 유금례 박종삼 박성애 나애순 최성자 김달삼 김단비 오영자 최중현 노병호  
 곽순금 박금용 임이택 박자영 김복희 최선규 문채숙 김영태 황두연 김순자 이은숙  
 문귀만 최지혁 김희석 이가영 김은경

##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김재한 김영미 김영월 이재성 이재연 김종철 조윤기 이정자 김민균 송희중 최순희  
 김숙경 김천대 손관우 손은정 조윤기 무 명 박미향 김정순 박미영

2010. 1.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라(신명기6:4-5)

2010. 1. 10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시편94:9)

2010. 1. 1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  
 뢰라(빌립보서4:6)

2010. 1. 24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  
 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107:20)

2010. 1. 31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편50:15)

★ 제4차 2010년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일자	요일	성명	비고	일자	요일	성명	비고
2/7일	주	박미정	010-3619-0362	5일	금	최상운	010-5059-8475
		이정자	010-5509-0809	6일	토	김요상	011-602-0724
8일	월	서점순	010-8944-8640	7일	주	김희중	010-5468-1670
		김숙자	010-2360-5214	8일	월	진영만	010-5605-2902
9일	화	김동해	019-406-2586	9일	화	김태석	010-8777-2827
		방정원	010-9474-2787	10일	수	김용덕	010-2636-2114
10일	수	진윤희	010-7488-9851	11일	목	오광록	010-7603-9851
		장미옥	010-7704-9917	12일	금	유영만	010-3629-3477
11일	목	문채숙	010-5643-0198	13일	토	김영근	011-638-1538
		양혜숙	010-6873-2437	14일	주	한만희	011-9739-0484
12일	금	김점자	010-6653-0559	15일	월	손문옥	011-9606-6487
		김숙경	010-8245-5064	16일	화	조윤기	016-681-3784
13일	토	허경자	011-9607-8475	17일	수	한경택	011-633-7200
		방봉순	011-605-3310	18일	목	장기술	011-9604-0577
14일	주	황생자	010-9877-1729	19일	금	최재현	010-6231-4589
		권화숙	010-7708-4315	20일	토	박의하	010-2231-4684
15일	월	김순심	010-7721-3238	21일	주	장승준	010-6609-2782
		유암덕	010-5339-1831	22일	월	이대남	010-2615-5064
16일	화	김정숙	010-2467-2113	23일	화	김재한	011-617-0571
		이귀님	062) 952-8590	24일	수	서진욱	010-5446-5357
17일	수	손종기	010-7283-8291	25일	목	이병권	010-6203-8640
18일	목	최지혁	010-3615-1638	26일	금	박동수	010-5602-7559
19일	금	문종승	010-7617-4070	27일	토	김용신	010-3008-6567
20일	토	김성훈	010-3827-7655	28일	주	임춘진	011-604-8516
21일	주	서향임	018-629-2785			김신자	010-7752-8667
22일	월	전순이	010-2999-7540	29일	월	서금자	016-9225-2602
23일	화	이준호	010-6280-8590			모순자	010-6610-5880
24일	수	김기태	010-6623-8667	30일	화	최옥기	010-4323-7101
25일	목	김문옥	010-2565-2602			유금례	010-9455-9579
26일	금	김명관	011-640-9608	31일	수	이봉순	016-9601-3784
27일	토	이현일	011-625-6945			황정선	010-4627-9608
28일	주	이동만	011-609-0774			임현옥	010-3907-2360
3/1일	월	곽세종	011-9607-9883	4/1일	목	장현자	010-8642-9883
2일	화	송희중	010-4370-7579			조선경	010-5469-1670
3일	수	옥 룡	011-616-2360	2일	금	김복희	010-5539-9919
4일	목	김종철	010-7735-9917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복 받을 사람의 자격



설을 맞아 서로 세배를 하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눈다. 주로 건강, 물질, 권력, 명예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라는 뜻일 것이다. 구약의 복은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뭇 다르다.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다. 다시 말해 성품의 복이다. 복 이전에 복 받을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기독교의 축복은 다르다. 행복(happiness)은 ‘우연히 일어나다(happen)’에서 온 말이다. 반면 ‘축복(blessing)’은 ‘피를 흘리다(bleed)’에서 나왔다.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된 것이다. 축복을 원하면서도 희생적인 대가를 생각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행복보다는 축복을 구한다. 성품의 복을 누리시길 바란다.



못 고치는 병과 안 고치는 병



사촌 집에 놀러갔더니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었다. 원채 책을 좋아하는지라 한참을 훑어보았다. 좋은 문장이 있어 얼른 메모했다. “모든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병을 허술하게 여기는 것이요, 둘째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때맞춰 약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모든 병을 하나님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죄를 허술하게 여기는 것이요, 둘째는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때맞춰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다.” 죄인이 아닌데 어찌 의롭게 하며 목자를 따르지 않으니 어찌 길을 잃지 않겠으며, 말씀을 먹지 않으니 백약이 무슨 효험 있으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못하실 리 없다. 내버려 두시는 거다.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고치는 병이다.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 찬송 559장(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 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 고마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찬송 212장(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 겸손히 주를 섬길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 당하게 하소서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 시키며 갈길을 잃은 무리를 잘인 도 하게 하소서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 리하게 하소서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 강언게 하소서 아멘

### 이미지 메이커

어느 시외버스에서 한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실수로 바닥에 생선을 쏟 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은 한바탕 소동이 났죠. 비린내 나는 생선이 옷에 닿을세라 모두들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바구니에 주워 담는 것이었습 니다. 비린내가 난다고 피하려들기만 하는 승객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곳은일을 떠맡고 나선 청년! 모두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감 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청년의 저고리에 꽃혀 있는 배지였습니다. 환 하게 웃고 있는 스마일을 닮은 모 기업의 배지가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승객들은 청년의 가슴에 빛나는 배 지를 보고 청년이 다니는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불 보 듯 뻔 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이르기를 주님의 편지요 사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 나 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과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 는 ‘이미지 메이커’ 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0년

## 설 명절 가정예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133:1절)



은혜가 넘치는 **하 남 은 광 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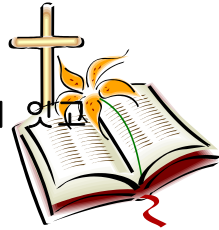
광주시 광산구 월곡1동 319-14번지 T.(062)953-3983

[Http://hanamekch.com](http://hanamekch.com)



##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

- 묵상기도 : 다같이
- 찬 송 : 559장(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대표기도 : 담당자
- 성경봉독 : 에베소서 4장 22-24절



<sup>22</sup>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sup>23</sup>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sup>24</sup>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 말씀제목 : 새사람을 입으라!=

201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명절 설날에 '새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다는 의미는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긴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그렇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내용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진정 새사람입니다.

여기서 새사람은 새로운 인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새해를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새날이 와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새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201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결심하면서 보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심령은 어떤 심령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심령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믿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고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메마르고 무력한 삶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만한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둘째, 긍휼히 여기는 심령입니다.** 새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위해 아낌없이 드리신 것입니다. 2010년도 새해에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 화평케 하는 심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자의 '화(和)'라는 것에는 '먹을 것(禾)을 나눈다(口)'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눌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내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 주는 Peace-maker로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 찬 송 : 212장(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  
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은혜가 넘치는 **하남은광교회**